



## 산줄기 굽이굽이 명찰 즐비

### 강원 인제·고성·속초·양양

**# 인제** 10월의 마지막 날, 백담사로 오르는 길엔 늦가을이 걸려있었다. 노릇노릇한 누룽지처럼 짙은 단풍들은 영락없는 자연의 모습 그대로다. 백담사에선 그렇게 황홀한 자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다.

인제에는 백담사가 있고, 백담사는 인제를 품고 있다고 할 만하다. 백담사는 내설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백담사에는 초하루 법회를 빼고는 특별한 법회나 행사는 없다. 하지만 백담사에서 사찰체험을 하려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백담사를 거쳐 내설악을 계속해 오르다보면 영시암과 오세암, 그리고 봉정암을 만날 수 있다. 이들 사찰은 인제불교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도량이다. 이들 도량은 수행기도도량으로도 이름이 높다.

이들 사찰 외에 인제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다. 바로 만해마을이다. 2003년 모습을 드러낸 만해마을은 만해 스님의 열을 되살린 곳이다. 문인의 집, 만해학교, 만해문화박물관, 수련원 등의 최신 시설을 갖춘 만해마을은 연간 2만여명의 수련생이 거쳐가는 국내 제일의 수련장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만해마을은 청소년들이 만해의 사상과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으로 산촌민속문화교실, 청소년 심성수련교실, 내설악 생태체험교실, 극기수련교

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교실, 통일문화교실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제불교는 전통과 현대, 수행과 실천이 어우러진 잘 익은 단풍 빛깔을 내고 있다.

**# 고성** 인제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한 고성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건봉사가 있다. 설악산 신홍사와 백담사 등 9개 말사를 거느렸던 한국 4대 사찰 중 한 곳이었던 건봉사는 1989년 민통선에서 해제되면서 일반의 출입이 자유로워졌고, 이때부터 복원불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1990년 대웅전, 팔상전, 명부전 등을 복원해 어느 정도 사각이 갖춰졌다. 하지만 복원불사에 매달리다보니 지역 활동은 미약한 편이다. 다만 고성의 한 복판인 건봉사의 포교당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건봉사와 함께 고성불교를 대표하는 화암사 역시 천년고찰로서 1991년 세계 켈리 대회 이후 사세가 확장되는 등 관광사찰이자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가고 있다.

**# 속초** 속초불교는 신홍사가 전부일 정도로 신홍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관광사찰 이미지가 강했던

영시암 봉정암, 기도도량으로 명성 건봉사 화암사, 천년 역사 간직 진전사 대웅전 복원으로 활력

신홍사는 다양한 복지사업과 청소년 포교 및 교육사업으로 강원불교의 지평을 바꾸어 놓았다.

현재 신홍사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반야노인요양원, 반야주간보호센터, 반야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모두 9개. 또 반야노인요양원 인근에 노인전문요양원까지 갖추고 있어 속초는 불교노인복지타운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신홍사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성존장학회'를 통해 속초 중고생과 대학생 등 70여명에게 연간 1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활발한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반야어린이집과 장사툼비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포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반야어린이집은 강원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통일대불 몸안 법당조성불사를 마치고 천수천안관세음보살 점안식과 낙성법회를 봉행, 새로운 수행공간을 조성하고 참배객들을 맞고 있다.

신홍사가 운영하는 신홍사 포교당 원각사는 도심 한복판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불교대



인제 만해마을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불교 수행단체 및 일반인 수련장소로도 각광받고 있다. 사진은 11월5-6일 만해마을 수련원에서 열린 서울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수련법회.

학을 개설해 공부하는 불자상을 정립하는 한편, 중교생 법회와 청년회 법회를 통해 불자인재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속초 교사불자회 법회를 운영하면서 수행단체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천태종 동광사도 천태종 특유의 신심과 조직력으로 속초불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홍사 산내 암자인 계조암 내원암 등은 수행기도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 양양** 양양불교는 올해 경사와 예사가 겹친 한 해였다. 지난 4월 양양 신불로 국내 3대 관음도량의 하나인 낙산사가 전소되면서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두 달 뒤인 6월에는 조계종 종조인 도의국사 주석처였던 진전사 대웅전이 복원되면서 활력을

얻었다. 진전사 복원은 앞으로 수 년간 계속될 예정이고, 또 내년부터 법회가 운영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준비를 갖추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큰 화마를 입은 사찰답지 않게 낙산사의 수행과 포교활동은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법회는 물론이고 음악회도 열고 경묘산치도 여는 등 지역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다. 다만 템플스테이는 수용시설이 없어 중단이 불가피한 상태다.

낙산사 복원은 발굴조사가 끝난 내년 상반기쯤부터 시작돼 적어도 5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달부터 휴련암 요사채 복원불사에 들어가는 등 복원 작업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낙산사는 복구사업과 함께 낙산사를 국민의 도량이자 국내 제1의 관음도량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각오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 수행·포교·복지도량 일귀

오현 스님 (속초 신홍사 주지)

오현 스님은 강원불교의 축이다. 1993년 신홍사 회주 소임을 맡은 이래 신홍사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아울러 강원불교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관광사찰에 머물던 신홍사가 수행·포교·복지 등 종합도량으로 자리잡은 것도 오현 스님의 일관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현 스님은 불교의 사회화방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소신이 누구보다도 강하다. 이런 소신에 따라 반야노인요양원 등 8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과 불교복지에 크게 기여했다. 은사인 성준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성준장학재단 이사장과 만해사상실천선양회 이사장을 맡아 청소년 육성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진전사 사격 갖추기 서원

마근 스님 (양양 진전사 주지)

진전사는 아직은 대웅전과 요사채 2동 뿐이지만 마근 스님의 머릿속에는 벌써 조사전과 선원 등이 다 갖춰진 진전사가 그려져 있다. 불사계획

에 따라 조사전과 선원 등 9개동의 전각을 더 지어 완전한 사격을 갖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도의국사 부도탑 등 주변 정비사업도 진행하고, 참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마근 스님은 조계종도라면 반드시 한 번은 진전사에 와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주 도의국사가 법을 선포했던 기풍을 다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이다. 진전사의 전통 사찰 지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신도회도 조직할 방침이다.

### 청소년·군경 포교에 열정

적멸 스님 (양양 현불사 주지)

절터와 축대만 남아있던 곳에 온 지 17년. 현불사가 어엿한 수행기도도량으로 자리잡은 것은 적멸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5년 강릉에서 도십포교당을 열기도 했던 스님은 어린이·학생·군인·경찰 등 다양한 계층에 걸쳐 포교활동을 했을 정도로 포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

월정사 상원사 등지에서 수행하다 공부에 뜻을 두고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 선종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한글 금강경과 법화경 출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강릉시에 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으며, 허가가 나는 대로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해 불교복지에도 뛰어들 생각이다.

### 낙산사 복구 순조롭게 진행

정현 스님 (양양 낙산사 주지)

정현 스님은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되다시피 했을 때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한층 강해졌다. 관음성지 낙산사를 국민의 낙산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지만 산불피해로 실의에 빠진 양양군민을 위해 지난 7월 복구기금을 내놓기도 했다. 또 8월과 10월에 두 차례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양양군민과 상주 음악회 참사회생자들을 위한 위로금도 전달했다.

조계종 사회부장으로 신계사 복원과 스리랑카 복지타운 건설 등 종단 현안으로 숭돌릴 틈이 없는 상황에서 낙산사 복구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종합불사 계획 '착착'

민호 스님 (속초 보광사 주지)

2년 전 보광사 주지로 부임한 이래 명부전 불사를 시작하는 등 사격을 갖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대웅전 보수불사와 관음전과 종각, 입주문을 짓겠다는 종합불사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불교대학과 어린이법회 등 이전에 보광사에서 열렸던 각종 법회와 강좌는 불사가 마무리된 뒤 다시 문을 열 생각이다.

공덕을 쌓는 불교를 강조하는 민호 스님은 스스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 부지런한 스님이다.

### 한문학당·수련법회 개설

정현 스님 (속초 원각사 주지)

신홍사 포교국장인 신홍사 포교당원각사 주지를 맡은 지 6개월. 이 짧은 시간 안에 신홍사와 원각사 포교활동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정현 스님은 어린이·학생 법회와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세부계획을 실행 중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군부대 학교 경찰서 병원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 어린이 한문학당과 수련법회를 개설하고 춘천 교도소 법회와 경승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무원 불자회와 운전불자연합회 창립도 추진하고 있다.

정현 스님은 이런 일련의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지역 수행체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발원을 실현시켜가고 있다.

### 일요 군법회 열고 포교 심혈

공현 스님 (고성 건봉사 주지)

스승인 영도 스님의 뒤를 이어 올 2월부터 건봉



사 주지를 맡았다. 일요일마다 군법회를 열어 군 포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성지 순례와 기도차 찾아오는 신도들이 숙박할 수 있는 숙소를 짓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신도들에게는 기본적인 신앙보다는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통해 정법신행을 할 것을 강조한다.

공현 스님은 그동안 복원불사에 주력해 온 건봉사를 수행과 수행여건을 갖춘 도량으로 탈바꿈시키 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불교문화 체험의 장 조성

삼조 스님 (인제 만해마을 주지)

삼조 스님은 만해마을을 "한국불교의 미래지향적 도량"이라고 말한다. 불자들이 모여 수행을 하고, 일반인들은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다. 이런 특성을 잘 살려 만해마을을 '국민의 도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삼조 스님의 생각이다.

지역에서는 인제군민에게 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불우 어린이에게 월 1회 자장면 봉사하는 등의 복지활동을 함께 지역 경찰서 보건소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해 무료강좌'를 여는 등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혔다. 또 인제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아 청소년 포교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 ● 2005년도 EPS밸브 설치 현황

부산 남도빌라 · 청주 두진빌라 · 안동 현대아파트 · 목동 우성아파트 · 일산 후곡아파트 · 산본 한양아파트  
인천 작전동 동보아파트 · 대전 한밭대학교 신축 기숙사 · 부천 오정지구 주공아파트 현장

● 현재 전국 각 시찰에서 시범설치 점검중이고, 난방비 절감 확인 후 많은 사찰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절감을 15% 이상 안될 시 환불해 드립니다)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 EPS밸브를 설치하게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EPS밸브는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터무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